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신 길은요.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시는 대학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자, 벌써
대학으로 가는 길 아홉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배우고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를 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요. 최대한 활용하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학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자신들만의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목적지로 가는 길 좀 더 빠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만의 전략, 브랜드와 그리고 여러분만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행해보시고요. 계획도 짜보시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만이
여러분들의 대학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까지도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발판삼아야 여러분들이 더 멋진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복기하시고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9강과 10강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제가 20가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9강에서 10개, 마지막 10강에서
10개의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 입시 Q&A Part 1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탐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기재가 아예 되지가 않아요. 고2, 3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기재가 됩니다. 특정 교과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논문이라는 활동이요.

활동명과 시간과 인원이 기재가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소논문 활동한

내용 자체가 담겨 있게 돼요. 하지만 고1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의 소 자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탐구활동 학종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활동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탐구활동이 학생부에

어떻게 하면 잘 녹아들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3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과제연구 교과에 탐구주제명, 혹은 참여시간, 그리고 참여인원까지는

간략하게 기재가 됩니다. 물론 소논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활동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활동이 따라 들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활동이죠. 그런데 자기가 들어간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분량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우리가 학생부 기재만을 목표로 해서 탐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학생부에 기재돼야지만 우리가 입시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2,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신의 소논문 활동 자체가 학생부에 기재가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불행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관련 사항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탐구활동 보고서 즉, 탐구보고서라고 하는 용어로 우회해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예 이것도 명시해놨습니다. 탐구보고서 형태라고 하는 명칭도요. 기재할 수 없다라고 학생부 기재요령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논문 활동 자체를요. 학생부에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게 고1 같은 경우에는 없게 됩니다. 고2, 3 같은 경우에는 과제탐구에는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1에서도요. 과제탐구가 보통 5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과제탐구 과목이 2개입니다.

수학과제탐구랑 사회문제탐구에도 소논문 활동을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기재가 안 돼요.

물론 기재활동 요령에는요. 학생 개인의 과학특성이라든가 수업참여도라든가 수업태도를

기재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바로 뭐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과세특과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소논문 활동 자체는 기재할 수 없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일반적 수준의 조사, 발표, 보고서 활동.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소논문 수준의 보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활동을 하거나 수행평가를 했을 때

보고서 쓰죠. 아주 간략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정도의 활동은요. 기재가 가능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겠죠.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 소논문에서 나왔었던 어떤 활동, 그 소논문의 명칭,

이런 거 자체는 이제 기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조사라든가

발표활동, 그리고 단순한 보고서 작성 정도는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해요. 특히 교과세특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각 단위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죠, 교과에서는요. 이 단위과

자기가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이 단위 시간, 이 단원을 수업을 할 때

자신이 해왔던 연구라든가 조사활동, 리서치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발표활동,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 활동을 간략하게 발표를 하면 당연히 그 활동 교과세특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탐구활동 자체가

소논문 기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재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탐구활동 자체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탐구활동 자체는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소논문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기재가 안 되는 거뿐이에요. 탐구활동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리서치 발표라든가 혹은 교과 연계 발표활동, 그러니까 주제 발표죠. 그리고 간략한 보고서 활동 자체는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충분히 여러분 탐구활동을요.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논문 활동이 기재가 안 되는 거지 탐구활동 자체가 기재가

안 된다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uestion 01**이었습니다.

자, 소논문 기재에 대한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그 외 만약에 혹시 소논문 활동이라든가 탐구활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학생회 임원이나

학급 회장/부회장, 심지어 동아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리더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이런 직책 활동, 임원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과연 제가 리더십 활동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해왔습니다. 제가 앞서 시간에 애기를 했잖아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라고 하는 명칭이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는요. 무려 고등학교 수가 2,300개 정도 됩니다.

매해 쏟아지는 전교회장 수만 하더라도 2300명 이상이에요. 여기에 부회장, 학년장 그렇죠?

그리고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까지 다 합치면 이런 명칭을 달고 있는 아, 여기다 동아리장까지 합하면

정말 매년 수만 명의 리더십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직책명에서, 이런 직책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마구마구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년 수만 명의 학생이 이런 직책을 달고 나오는데 임원 혹은

부장이라고 하는 게 학생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런 학생들 자체가 만약에

수가 적어요. 적다라면 충분히 그런 직책이 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런 직함을 달고 나옵니다. 직함이 주는 메리트 뭐 0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런 명칭이 주는 파워는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학생부에 기재된 자신의 명칭이라든가 임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못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명칭이라든가 직함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심지어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라든가 학급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고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니까?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학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 가이드 자료에 나왔던 리더십에 관련된

명칭을 제가 따왔어요. 평가자가 임원활동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 수행한 역할의 내용,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이걸 동국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직책은 적혀 있는데

이 학생의 어떠한 행동,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즉, 감점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직책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플러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라든가 친구들의 변화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는요.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학급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의 구성원이

이만큼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사회, 그 집단의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

주는 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진짜 실행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친구들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물론 굉장히 커다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캠페인을 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져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큰 캠페인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커다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책, 특히 학생회 임원이 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책이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다.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활동이라든가 아주 작은 개인의

캠페인을 해서 친구들이 보고 변하는 모습이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이 돼서 교문 앞에서 프리허그 운동, 흡연하지 맙시다,

학교폭력을 예방합시다, 열심히 쓰레기를 주웁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캠페인 활동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캠페인 활동을 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까?

이런 활동은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의 임원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학생회 임원이라면 학급의

반장, 부회장. 즉, 회장, 부회장이라 하면 이런 활동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가 떨어져요.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굉장히 작지만 자신의

어떤 학급이라든가 학교가 바뀔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칭찬게시판 만들기. 회장이나 부회장,
설사 그런 임원이 아니더라도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의 어떤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실 게시판에
칭찬게시판을 만들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죠.

친구들을 서로 칭찬하다 보면 보지 못했었던 장점을
보게 되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평상시에는

좋지 않았던 점인데 이런 게시판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조그마한 게시판 만들기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모든 친구들과 점심 먹기 활동. 그렇죠?

보통 점심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대신에 각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한 번씩 밥을 먹어보는 캠페인, 이게 자기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급 캠페인으로 같이 해도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니또 행사 많이
하잖아요. 보통 마니또 같은 거 선생님이 주도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 주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주도해서 마니또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 반 구호라든가 반 응원가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불러서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돼요. 아침 일찍 학교 오는
친구들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하기 전에

반도 환기해보고 그리고 반의 책상 줄이 어지러워져
있으면 다 맞춰보고 이런 활동 뭐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매일매일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하루 하다가 말고, 일주일 하다가 말고,
한 달 하다가 말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려면 매년,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시키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직접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하면

여러분의 어떤 뭐가 나오니까? 자발성, 자기주도성이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니까?

이러한 활동 뭐 칭찬게시판 만드는 것도 좋고요.
친구들과 점심 먹기도 좋고요. 마니또 행사 좋습니다.

체육대회 반 구호, 노래 만드는 거 좋고요. 매일
환기하기, 매일 하교 전 교실 정리하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되죠. 학생부에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알아야 됩니까?

담임선생님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과 먼저 소통을 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학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환기 같은 거는 선생님 저 환기할게요라고 하는 건

좀 약간 티가 나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매일
이런 활동을 하면 친구들이 알아요. 알고 선생님이

가끔 왔는데 어, 우리반은 환기가 잘 돼 있네.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이런
거 저 매일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함이라든가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은 프로그램,
작은 활동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심지어 짝 한 명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행동을 보고 바뀌면 모습이 기재가 된다면

그게 바로 됩니까? 리더십입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직함이
있는데 뒤에 단순히 뭐 학생들과 반 학생들의

소통을 자주 하고 반 학생들을 굉장히 잘 이끌었습니다,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미사여구 다

필요 없습니다.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학생들과 소통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기재가 돼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얼버무려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미사여구죠. 구체적인 활동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행동으로 포장이 된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행동은요. 입시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리더십 어떻게 하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그마한 활동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
친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이게 바로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활동에 대한 기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폭넓어요. 이런 폭넓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Question mark가 짱 하고 뚫렸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통해서

학교 활동에 대한 기록을 무수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일단 자신이 참여한 모든 활동은 기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학생부에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계기를 기억해두시고요. 활동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특강자, 특강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캠페인 활동이라면 캠페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활동 전에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조그마한 어떤 활동들을요.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그 활동에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해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통해

자기가 느끼고 배운 점을 또 꼼꼼하게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내가 이 활동을

한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지 즉, 후속 활동이잖아요. 연계된 후속 활동을 무엇을 할지 정도도요.

활동 전에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선생님의 이런 자료

강남구청 인강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자료실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자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출력 다 하셔서 여러분만의 어떤 자료집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활동에 대한 기록서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모아야지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고3 돼서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이런 기록지로부터 얻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기록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교과선생님께 제출을 해야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요. 다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출하기 전에 미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저 이런 활동 할 건데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를 물어보세요,

넌지시. 이게 뭐니까? 물론 진짜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효과도 있어요.

저 이런 활동 할 거예요. 할 거고요. 나중에 기록지라든가 혹은 보고서 제출할 건데 꼭 학생부에

기재해주세요라고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아, 애가

이런 활동을 할 예정이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

아, 그래. 너 이런 활동을 했었지. 느낌이 어땠니? 그랬어, 뭐가 좋았어? 어떤 활동 할 거야?

다 뭐로 연결됩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부 기재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한 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는요. 선생님이 기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당연히 학생부의 기재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 한 명만 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한 반 인원, 심지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선생님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눈에 띄는 학생 위주로 관찰하고 기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활동을 하셔야겠죠. 선생님과 소통 바로 그게 눈에 띄고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사 활동 할 때 뭘 하라 그랬어요?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혹은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독서, 혹은 신문기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전공 듣는 거 많잖아요. 유명 인사 오셔서 강의 많이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

신청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돼요? 그분께 궁금한 게 많겠죠. 그냥 가서 무턱대고

듣고 있다가 아, 좋았네. 가지 마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활동 뒤에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Q&A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아, 이제 끝났구나. 가야겠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날 가서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듣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재미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날 막상 가서 질문을 찾으려고 하면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주세요,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적어가서 그날 Q&A 시간, 혹은 Q&A 시간이 없더라도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강의를 들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요. 강의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직접 그분께 가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선생님께서,

이 강사분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수확을 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관련 분야 관심사항

있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직접 이메일 보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결과물이 있는 사전 활동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고 나서 느끼고 배운 점 굉장히 사소한

느낌이더라도 그냥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운 점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혹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감정이라든가 느끼고 배운 점,

아쉬운 점, 좋았던 점들을요.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쓰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은 기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감정이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정, 굉장히 많은 느끼고 배운 점을요. 담아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활동이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활동 자체가 하나로 딱

끝나버리면 활동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이 활동에 이어지는 후속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후속 활동이 없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사 그 활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두 번째 활동,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얻는 게 많았으면 굉장히 배운 게 많겠죠.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두 번째 활동. 이런 활동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기 전에?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아, 내가 이 활동 하고 나서 이러한 점을 얻게 되겠지. 그러면 이 활동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활동 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 종료 시점에 바로 다른 활동으로 이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어떤 강사라든가 대필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 보완할 점 등을

다 생각해놓으시고, 자기가 하기 힘들면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서 후속 활동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후속 활동이 작건 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연결돼서 이러한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현재의 입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활동 간의 연계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은요. 바로 뭐다?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이 바로 요구하는 핵심

활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기록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쓰는 귀차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

좋습니까? 사진도 찍고요. 동영상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블로그라든가

BAND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블로그나 **BAND**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을 하셔야 됩니다.

비공개를 하셔야 돼요. 공개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정보니까 무조건 비공개로 하셔서 모든 활동,

모든 감정, 모든 사진, 모든 동영상을요.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되잖아요. 웹의 특징이 뭐니까?

웹하드의 특징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휴대폰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기록지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업로드한 자료는 이 사이트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었던

알려드린 어플 구글킵이라든가 보이스텍스트, 텍스트 스캐너, 캠스캐너와 같은 굉장히 좋은 어플이 많습니다.

사진 찍으면 바로 **PDF**로 바뀌는 것, 사진 찍었을

때 사진에 나와 있는 글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

녹음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 메모지 구글킵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그때 기록하고 그때그때 업로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쓰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실컷 기록해놓고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록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 기록을요. 사진 찍고 올려놓는 수고는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기록지는 항상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잘 놔두는데
항상 뭔가 잘 놔두면 잃어버려요. 인간의 특징이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놔두는데 그 잘 놔두는 장소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과 웹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웹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활동에 대한 기록 반드시 기록해주시고요.
활동 전에 사전조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지

만드시고요. 느끼고 배운 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과 소통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빛이 나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uestion**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볼까요?

자, 1학년 내신을 망쳤어요. 수시가 아닌 정시에
올인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딱 끝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아, 저 망쳤어요. 선생님 저 정시파로 갈래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어, 그래라. 그런데 너
공부 안 할 거야. 1학년 때부터 정시를 꿈꾸는 아이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나는 정시에 성공할 거야. 그 친구의 그 성향이 맞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쳤다고 해서 그 아이의 내신성적이
꽂입니까? 아니죠. 왜? 내신 100% 보는 건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빠끗해도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40% 정도
해결되지만 인서울권,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권에서는

굉장히 훅 떨어져요.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서울은 뭐가 많아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50%까지 갑니다.

그런 친구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의 성적, 심지어 1학년 내신을 망쳤다고 해서 학종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학종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학종은요. 뭘 봅니까? 성적의 추세를 보잖아요.

성적의 추세를 보기 때문에 낮은 스타트 라인은 뭐가 가능해요? 내가 2학년 때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높이를요. 더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1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2학년 때, 3학년 때

더 열심히 노력해서서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스타트 점프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뭘니까?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목적지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성적 좋은 친구들은

2학년 때, 3학년 때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 받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성적이 나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2, 3학년 때 성적이 높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하는 거죠, 좋게요. 그러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이 망친 친구들, 혹은 1학년 전체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바로 정시로 가는 그런 선택 웬만하면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낮으면 2, 3학년 때 오르면 됩니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올라갈

곳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장점이 돼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노력을 하면은요. 그게 바로

뭐가 뭘니까? 학종에서 강조하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깨닫고요.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스스로 할 거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독서를 많이 활동을 해서 부족한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뭘니까?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발적인 주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든가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못 했다든가,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렸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철저하게 시험 볼 때 대비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를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 웬만하면 2학년 2학기 때 끝나고 결정해서도

돼요. 1학년 때 정시에 올인하겠어요, 2학년 초반 때부터 정시에 올인하겠어요. 수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관찰해보면요. 공부 안 합니다. 수능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옆의 친구가 수능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겨요. 그런데

옆의 친구는 수행평가하고 있고 내신 집중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수능에 올인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힘들니다. 정시에 올인하기 굉장히 힘든 분위기예요. 특히 요즘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특목고, 자사고라면 그 특목고, 자사고라든가 혹은 성적대가 높은 그런 학교라면

충분히 주변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분위기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 수준의 일반고에

다니고 있다면 그런 정시 올인 분위기가 심지어 3학년에서도 형성되기 힘들니다. 왜? 일반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가 수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 즉,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됩니다. 설사 하더라도 언제 가야 돼요?

정규 수업이 끝난 7교시 이후에 자율학습을 하든, 학원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독서실을 가든 거기서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봤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정시를 준비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정시는 특히 인서울권을 노리는 정시 친구들은요. 이 정시 합격생의

절반 정도가 다 누구예요? N수생들입니다. 재수생, N수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심지어 그 점수가 잘 나오는 자사고, 특목고생들도요. 10명 중의 4명 정도는 재수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정시에서는요. 재수생, N수생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 친구들과 경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 활동을 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경쟁이 돼요? 이 친구들은 1년 내내 하는데, 그래서 정시 올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자기의 스타일이

정시 스타일이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엄청난 정신력도 필요해요. 소위 얘기하는 멘탈 강화가 필요합니다. 왜? 주변의 소음과 주변의 분위기에

초연해진 상태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들니다.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정시에 올인하셔도

왜요. 그런데 하기 힘들다니깐요. 하기 힘들죠.

항상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 높은 것애다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1학년 때 혹은 2학년 초반부터 정시 올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큼니다.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리스크가 적고 확률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시 올인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리스크 크고요.

확률이 낮다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 성적이 낮아요.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뛰어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만큼 성적이 낮은 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노력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력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성적이 오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적 오르기 힘들어요. 아셨죠?

자, 다섯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평가할 때 단순히 각 교과목의 석차등급만을 평가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석차를 처음에 보죠. 그런데 석차만 보는 건 아닙니다. 대학이 볼 수 있는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석차등급 당연히 보입니다. 원점수 보이고요. 과목평균도 보이고요. 표준편차, 수강자수,

당연히 이수교과목이 보여요. 똑같은 2등급이라고 그 2등급을 2라고 하는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2등급이라고 하는, 혹은 1등급이라고 하는, 3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기 위한 환경

즉, 그 교과를 얼마 정도의 학생이 수강을 했는지, 교과목의 난이도는 어떠했는지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죠.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과학 성적을 보자고요. A라는 학생은

둘 다 A, B 모두 다 2.0이라고 하는 과학 내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는 평균이 88점이에요.

표준편차는 8.5죠. B라는 친구는 원점수가 92점이고요. 표준편차가 13.3입니다. 그리고 평균까지 나오죠.

만약에 A라고 하는 교과목의 평균이 60이다. 그리고 B라는 교과목의 평균이 한 70이다.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평균이 높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시험문제가 쉬웠다는 의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 높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편차죠. 표준편차가 크다는

내용은 각 학생들의 수준차가 크다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적다는 얘기는요. 학생들 간의 어떤 수준차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굉장히 적어요.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적다는 얘기는 그 학교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질이 상향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균등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강인원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300명에서 2등급을 받는 것.

11%잖아요. 그렇죠? 11%면 300명이면 몇입니까?
3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150명이라면

몇 명 안에 들어야 되죠? 한 17등 정도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33등 안에 들어가는 거랑 17등 안에 들어가는

거랑 좀 다르죠. 수강인원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지만, 똑같은 등급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점수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 그리고
수강인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한지를 대학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2.0이지만 어떤 학생의 2.0이 더 좋은 2.0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2.0이에요. 그런데

지구과학 I 과 물리 I 보시면, 특히 이제 물리 I 같은 게
좀 많이 나타나죠. 인문고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목

어렵죠. 물리 I 과 경제과목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문계
학생과 이공계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반면에 지구과학이라든가

생윤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죠.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만 생각하면 쉬운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지구과학 쪽이 훨씬 더 수강인원이
많겠죠.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윤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본다는 거죠.
똑같은 2.0이기는 하지만 누가 더 우수하다고 볼까요?

물론 과 자체가 무슨 지질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공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 한 학생은 지구과학 I 을
선택했고요. 한 학생은 물리 I 이라는 과목을

학교에 각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2.0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은 지구과학을요. 1.5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둘 다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공대를 지원합니다. 공대를 지원했을 때 대학은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까요? 점수만 보면 애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물리가 굉장히 필수 교과죠. 그리고 물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공대에서는요. 1.5를 받은,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1.5를 받은 학생들보다는 물리 I 을 선택을 해서 2.0, 심지어 2.5까지 받은 학생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학생부종합전형이죠. 그래서 보면 1.0을 받은

학생이 떨어지고 2.0을 받은 학생이 붙는 게 굉장히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학종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물론 숫자 자체가

평가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정보를요. 학생부 전체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대학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석차 내신만으로 그 학교를 지원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내신을 평가할 때 단순히 각 교과 의 석차등급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전체 학생의 질이라든가 수준,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그 교과를 얼마만큼의

학생이 수강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에 맞는 교과를 선택했는지. 즉, 쉽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교과를 선택하거나 어렵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혹은 내가 대학에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교과라고 한다면 어렵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요. 그 노력, 그 선택 과정을 대학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요.

그래서 물론 물리 I 선택을 해서 내신도 좋았다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물리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또 우수한 학생이

많이 이 교과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안합니다, 대학은요.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면 평균도

높겠고, 표준편차도 작겠죠. 그리고 수강인원도 보면

굉장히 적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설사 석차등급 자체가

생각보다 낮다 하더라도 그 석차 등급 이상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 1학년 2학기
때 2학년에 올라갈 선택 교과 선택을 하잖아요.

꼭 이러한 거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섯
번째 **Question**입니다. 전체 내신이 입학처에 공개된

평균 내신보다 약한데 학종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학생들도 물어보기는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학부모님들과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합격점수에 익숙해져 있어요. 대학에서 공개하는, 예전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 이런 게 없었어요.

내신 커트라인과 수능 커트라인만 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공개하는 평균점 혹은 커트라인

점수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시는데 수능100이라든가 혹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커트라인 점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종에는 커트라인
점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의 학생과

가장 높은 등급의 학생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학종은 교과 수능과는 다르게

range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학생부 등급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성적만 보는
정량평가가 아니에요. 점수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신 중요해요. 왜? 평가 요소 중의 하나니까,
하지만 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전체 내신 평균

이건 뭐예요? 전체 내신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전체 내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공 관련 교과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라든가 서울대 같은

아주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신도 봅니다.
내신도 보고 전체적인 각 교과의, 그러니까 모든 교과의

내신을 봐요. 그래서 너무 티가 나게 떨어지는 교과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 최상위권 대학 말고

인서울에서 한 중위권,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신보다는 뭘 중시 여깁니까? 전공과 관련된 내신을

훨씬 더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전체 내신보다는 전공 관련 교과 내신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 관련 교과 내신은 대학교 입학처에 공개가 안 돼요. 대학교 입학처에 공개가 되는

거는 지원 학생의 전체 내신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신이 담고 있는 정보가요.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개하는 내신만으로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 지원하지 말아야겠다를요.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그것도 특히 전체 내신으로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체 내신은 그 대학에서 공개하는 내신 평균보다 낮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공교과 내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학생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공 관련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간 친구라면

당연히 그 대학 지원할 만합니다. 아셨죠? 학종은 전공 관련 교과라든가 관련 교내 활동을 통한

정량평가라기보다는 정성평가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제 헛갈리시면 안 돼요. 정량평가

아닙니다. 정량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정량평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평가입니다. 알겠어요?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에 공개되는 내신은

평균 내신입니다. 평균 내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보다 높은 내신도 있고, 이거보다 낮은 내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생의 내신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경희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1.0 탈락생도 있고요. 7.0 탈락생도 있습니다. 1.0이 탈락하기도 하지만 5등급대가

합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과에 따라서는 심지어 6등급대 학생도 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6등급 정도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특목고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일반고 중에서도 4등급대에 붙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려 있는 경우가, 경희대학교만 하더라도 2등급과 4등급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range 범위가 되죠. 평균만 보면 한 2.1, 2.2가 나오겠죠. 경희대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합격자들의 내신을 이렇게 쭉 늘려보면 굉장히 다양한 점수대의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는 거

알 수도 있고요. 경희대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국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색깔은 보이시죠? 이 색깔이 뭐예요? 합격점수표입니다. 1, 2, 3, 4, 5, 6까지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이 2등급부터 6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이렇고요.

이공계도 어때요? 이공계도 굉장히 2등급부터 5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어요.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말이죠. range 범위가 폭넓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신 관련 정보를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내신인데 이 정도 범위에 드는구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참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신점수만 가는 건 아니에요. 내신점수도 보고요. 이를 둘러싼 학생의 노력도 보고요. 이와 관련된 학생부의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신점수 하나만으로 내가 이 대학을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도대체 학업역량이 뭐라는 거죠? 학업역량이 뭔가요? 그냥 성적만 좋으면 안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들은 학업역량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대학이 보는 학업역량의 정의예요.

학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높고 우수한 학습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래요.

학업능력, 성취, 탐구력, 사고력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학업의지,

지적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탐구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학은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학업역량을 뭐로 보느냐? 단순한 학업적인 성취라고 봐요. 대부분 성적 상승, 좋은 내신

성적. 그래서 자소서 때 나만의 공부법 쓰고요. 경시대회 수상내용을 쓰고요. 교과 관련 스터디 내용을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서에. 1번 항목이 학업역량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만 학업역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업역량을 축소해서 판단한 거죠. 학업역량은요. 이런 겁니다. 교과활동과의 콜라보가 나와야 돼요.

이 학생이 교과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교과만으로 충족이 안 되죠. 독서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활동도 해야 되고, 보고서 활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전공 탐색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독서 같은 거 굉장히 중시여기죠. 그리고 연구/탐구활동

그래서 어떤 겁니다? 진짜 공부.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성적 상승이 아니에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전공 방향에 대한 연구와 탐구활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꼭 빠져 있는

모습을요. 학생부 전체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학업역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학업성취라기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지적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업역량은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 그런데 대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학업역량은 좀 더 넓어요.

지적 성취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학생부 전역에 걸쳐서 쭉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활동이라든가

특이한 학습법이라든가, 독서활동, 교내대회, 탐구활동,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물론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은 낮는데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성적이라고 하는 거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활동들이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부 전체에 이러한 학업역량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만

아, 이 학생이 정말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업역량이 무엇이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러한 능력이 학생부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여러분이 활동하시고요. 계획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수상실적이 학기당 1개만

들어가는데 교내대회 굳이 참여할까요? 보통 이제 고1 같은 경우인데 고2, 3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수상이 다 대학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교내대회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1이 문제죠.

고1은 수상실적이 기재는 다 돼요. 학생부에 기재는 되는데 고3 때 돼서 대학에 자료를 보내거든요. 그때는

몇 개만? 1개만 꼭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죠. 자, 당연히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내대회 할 때 학생부 수상 2019 학생부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수상실적에 대한 파악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대학교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상실적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1학년 때부터는

하나만 보입니다. 이 학생이 다른 대회에서 똑같은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학생이 하나 타고 1등을 하고, B라는
학생이 2등상을 보냅니다. 2등상을 보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B라는 학생은 이 외에도 10개
정도의 수상을 했어요, 한 학기당. 그런데 이 학생은

진짜 1개만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비록 2등을 한
학생이기는 하지만 애가 훨씬 더 어때요? 학업역량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대학교들은
봤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학생이 보낸 수상의
1등이나, 2등이나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대학이 이거 모릅니까? 알겠죠. 당연히 대학은 각
학생들이 보낸 수상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가의 가치가 지금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심지어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학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수상실적의 파워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수상은 있으면
좋겠죠. 이왕 보내는 거, 대학에 보내는 1개가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라면 당연히 좋겠죠.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교내 대회에 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교내대회에 참가를 했거든요.

일단 많이 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봤자 보낼 수 있는 건 하나.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참가할 교내대회를 1년에 봤을 때 4개~5개 정도로

줄여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가 목표로 했었던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나서

자기 목표가 할당이 됐어요.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교내대회를요. 그해는요. 접어도 상관없을 거

같아요. 자, 교내대회 목적은요. 수상의 목적이
물론 수상이 타면 좋겠죠. 하지만 수상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로 이어지니까? 다른 활동의

뭐가 돼요? 연계가 되죠. 교내대회를 연계의 한 축으로
삼는 겁니다. 물론 교내대회 참가 내용은 학생부에는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교내대회
활동 자체가 이전에는 교내대회 참가 자체가 학생부에

기재가 않더라도 수상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수상마저 하나밖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내대회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 약해진 것을 그냥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어떤 거로? 활동과 활동을 이어주는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교내대회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내대회라고 하는 건 뭘니까?

참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성취가 있어요.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렇게 노력한 노력을
다음 활동으로 연계한다면 충분히 자기소개서 쓸 때는

교내활동 언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하나의
소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교 보면

발표대회, 탐구대회, 과제발표대회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산출물을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요.

교내대회 나갔다고 하지 말고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자기 만든 산출물이 있죠.

발표 내용이라든가 혹은 PPT 화면, 혹은 보고서를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참가를 했겠죠. 당연히 전공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전공과 연관 있는 산출물을 수업
시간이든가 아니면 자율활동 내에 관련된 자율활동 있죠.

흡연교육, 성교육, 학교폭력교육 이런 교육 많잖아요.
이런 교육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교내대회에 냈던 자료 그대로 내기보다는
양심에 찔리니까 살짝 바꿔서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자율활동 시간에 발표하면 충분히 그건 뭐로 가능해요?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죠. 왜? 자기는 교내대회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수업시간 발표, 그리고 어떤 거?
자율활동 혹은 진로활동 시간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로 활용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내대회를요. 잘 선정하시고요. 특히 교내대회가
상을 타면 좋겠지만 상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활동 자체를 어떻게 하면 학생부의 다른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서 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의 교내대회잖아요. 교내활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내대회 활동이죠?

앞에 사전 활동 있을 것이고, B의 활동이 또 있을 겁니다. 뭐로 가는 거예요? 이 활동과 이 활동을

연계해주는 연계 활동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수상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셨죠?

이런 활동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활동, 특히 후속 활동이 좋게 나와요.

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고2, 3학년 때 선택하게 될 교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고1 학생들 1학기 여름방학 전에

사전조사를 합니다. 2학년 때 어떤 교과를 선택할지 고민해보세요라고 해주시고,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 때

이제 여러 번의 가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진로는 이런 방향인데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그 시기에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학생의 교과 선택의 폭이 정말로 넓어졌어요. 심한 경우에는 오픈할 수 있는 모든 교과를

오픈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처럼. 그래서 특히 학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

혹은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강남인강 저의 자료실에

교과선택을 할 때 필요한 자료 3개를 올려놨어요. 교육부에서 만든 거, 교육청에서 만든 거, 대학에서

만든 거. 각각의 자료를 보시면 어떤 전공교과, 어떤 전공학과가 어떤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지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교과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어떤 연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A라는 교과를 들어야지 B라는 교과를 들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 교과는 어떤 학과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집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3개

꼭 1학년 학생이라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언제? 여름방학 때. 자신이 2학년, 3학년 때 어떤 교과를 선택할지들요.

물론 2학년도 읽어봐야겠죠. 3학년 선택교과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과 선택에 대한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자료실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좀 많아요. 출력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보셔도 됩니다. 꼭 읽어보셔서 자기에게 맞는 교과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자기가 3학년 때

올라가서 주력으로 삼게 된 전형이 학종인지, 혹은 정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학년 같은

경우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학종이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주전공이다. 주전력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 선택을 해야 돼요.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요. 이공계라면, 특히 공대라면

어려운 기하와 벡터와 물리 I, II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내가 상경계열을 가고

싫어요. 경제수학과 경제 교과 선택해야겠죠, 어렵지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학종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수능에 올인 할래.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뭐로 가야 돼요? 그 교과의 선택 기준이 전공이 기준이

아니라 수능 볼 때 선택할 교과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수능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평가잖아요.

탐구영역 자체가, 기왕이면 좀 쉽고 기왕이면 선택 인원이 많은 교과가 유리하겠죠. 그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기가 비록 이공계에서 공대 같 예정이지만 나는 수능에

올인 할 거야.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물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수능은 어차피 전공적합성을

보지 않으니까, 점수만 보니까 친구들의 많은 선택 무려 70% 가까운 친구들이 선택하는 지구과학 I 이라든가

이공계 교양과목이라 불리는 생명과학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상경계 갈 친구이기는 하지만

수능이 제1 옵션이라면 경제 할 필요 없죠. 2%밖에 선택을 안 하는데 6,000명도 채 선택을 하지 않아요.

4%입니다. 풀랑 몇 명? 200명만 1등급을 받습니다. 힘들죠. 반면에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이상이 선택하기 때문에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뭐가 가능해요? 좋은 등급 따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전력 자체가 뭐면? 수능이라면 충분히 이런 학생들의 선택, 특히 선택을

많이 하는 교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일단 자기의 어떤 주전형이 학종이나, 정시냐에 따라서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할 교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과학 I 과 과학 II 연계

고려해야 됩니다. 과학 II는 과학 I 을 들어야 돼요. 물리 II를 듣기 위해서는 물리 I 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과학Ⅱ를 듣기 위해서는 생명과학Ⅰ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전공이 많이 바뀌잖아요.

나는 공대 싫어서 2학년 때 물리Ⅰ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공대를 가야 될 거 같아.

물리Ⅱ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선택을 못하게 되죠.
물리Ⅰ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히 과학Ⅰ 선택할 때 과학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다음에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학종을 지원할 때 특히 공학계열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나 수능 때 기하와 벡터 안 볼 건데요?

안 보더라도 자기의 주전공이 학종이면 100% 대학들은
기하와 벡터의 수강여부를 볼 겁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특히
수학과제탐구라든가 사회문제탐구도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과제탐구다
보니까 교과세특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겠죠.

다채롭고, 그래서 학종이라면 이런 과제탐구 교과를
선택하는 것도 나름 메리트가 있다. 특히 이제

진로교과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성취평가제죠.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뭐가 약해요? 내신 부담이

굉장히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에 맞는 거를
딱 선택하셔도 돼요. 절대평가니까 평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로교과.
뭐 일반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과 정시의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진로교과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많이 듣거든요. 고3 때 나는 정시 쪽으로 갈 거야.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진로교과를 막
탐구활동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왜요? 안 되죠.

고3 때 자기는 정시에 올인 할 건데 최대한 부담이
적은 거로 가야죠. 그런데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프로젝트하고, 막 탐구보고서 쓰는 거예요. 학종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교과이기는 하지만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팀 만들어서

프로젝트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친구 따라가는 거 진짜 멍청한
행동입니다. 친구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전형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전공교과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과 간의 위계

과학Ⅰ,Ⅱ 같은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무엇을 배우고 3학년 때 무엇을 선택할지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열 번째 질문입니다. 정규동아리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동아리를 선택했어요. 어떡해야 돼요? 이런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 친구들 막 정규동아리 발표나면

핑핑 읍니다. 선생님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자, 2, 3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정규동아리 떨어지면

비슷한 자율동아리 얼마든지 만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죠.
그런데 1학년이 문제예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10장에서 얘기할 건데 자율동아리의 굉장히
제한폭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1학년과 2, 3학년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동아리 활동 뭐로 가셔야
돼요? 동아리의 어떤 명칭, 동아리의 어떤 커다란 질

이거보다는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얻었는지에 대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동아리 명칭과 활동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아리에 상관없이 자기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자기의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가 가장 큼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선택은 막상
선택을 했는데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를 선택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뭐 비상설 동아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CA 같은 거.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전략이기는 한데 자기가 어떤 정규동아리 신청을

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남아 있는 거 봐야 되죠.
남아 있는 건 보통 비상설 동아리가 많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면 돼요? 좀 폭넓은 걸 선택해야
돼요. 시사동아리, 독서동아리 이런 게 좀 전공적합성

따지기에 그나마 좀 편하죠. 그런데 막 배드민턴부,
배드민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배드민턴부,

영화감상부 좀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학종 쪽을
좀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꽤 많은 정규동아리는

다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동아리 중에 선택을
할 경우에는 좀 자기의 전공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폭넓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당연히 정규동아리는 가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떨어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떨어진 친구 같은 경우는 실망하지

말고요. 뭘 만드시면 돼요? 자율동아리 만드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는 철저하게 뭐로 가시면 돼요?

자기의 관심 분야에 맞는 동아리 선택해야겠죠. 왜?
자기가 직접 만들고 혹은 친구들과 같이 만들 동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는 보완적 관계로 가면 돼요.

정규동아리가 전공적합성이면 자율동아리는 학업역량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정규동아리가 뭔가 자기의 관심사,

흥미와 관심이 많으면 자율동아리는 전공적합성을
강조하는 거로 가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전공적합성을

강조하는 거로 가도 됩니다. 아셨어요? 대신에
전공적합성이 정규동아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율동아리에서 만큼은 전공적합성을 드러내는
동아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 아셨죠?

특히 정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소명기회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공계를 진학하는 친구인데 인문사회와 관련된
거를 샀어요. 뭐 고전읽기. 그러면 어, 그냥 봤을 때

이 친구는 이공계인데 왜 고전읽기 동아리를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이. 그 목적을요. 학생부에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가거든요. 팩트라고 하는 것은
뭘니까? 활동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왜

이 동아리를 선택했는지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소명하라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소명을 하면 돼요.

그 활동이 자기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얘기입니다. 자, 다른 활동으로 정규동아리의

약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뭐로 하시면 돼요?

자율동아리 가능하고요. 자율동아리가 좀 약점이 있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소모임활동, 교과세특 내의

탐구활동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정규동아리 활동이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동아리가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한 활동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때 어필하면 됩니다. 발표하시면 돼요.

자율동아리 1개만 들어가고 1학년 같은 경우에 30자
이내의 동아리 설명이잖아요. 하는 활동은 아깝잖아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혹은 학급소모임활동으로
확대시켜서 다른 칸에 기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이러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정규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친구들,

학생부의 다른 영역 내에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9강에서 일단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10가지
Question을 가지고 꾸려나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이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 10강 드디어 우리 대학으로 가는 길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음 10강에서도요. 10개 나머지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